

이 집 트

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7. 3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8
IV. 국제신인도	11
V. 종합의견	13

I . 일반개황

면적	1,001천 km ²	G D P	2,689억 달러 (2016년)
인구	91.0백만 명 (2016년)	1 인 당 GDP	2,879달러 (2016년)
정치체제	공화제 (대통령 중심제)	통 화 단 위	Egyptian Pound (E£)
대외정책	친서방, 친아랍	환 율(달러당)	10.07 (2016년 평균)

- 이집트는 한반도의 5배에 해당하는 넓은 국토와 9,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북부 아프리카의 대국이며, 전체 인구의 90%는 수니파 이슬람교, 그 외 10%는 기독교(대부분 콥트교)를 믿음.
- 유럽, 중동,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여 아랍과 서방을 아우르는 유연한 외교정책 등을 통해 역내 정치, 경제, 외교의 중심국 역할을 하고 있음.
-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2011년 1월 무바라크 대통령의 30년 독재정권이 종식되고 무르시 후보가 당선되었으나, 이슬람주의 정책 강요와 권력 기반 확대에만 급급하다 쿠데타로 집권 1년 만에 축출됨.
- 이후 과도정부를 거쳐 2014년 5월 대선에서 쿠데타를 주도했던 엘시시 前국방장관이 당선되었음. 군부의 지지와 대안세력의 부재로 엘시시 대통령이 당분간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임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 표 1 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(단위: %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 ^e	2017 ^f
경제성장률	2.1	2.2	4.2	3.8	4.0
소비자물가상승률	6.9	10.1	11.0	10.2	18.2
재정수지 / GDP	-13.4	-12.9	-11.5	-12.0	-9.7

자료: IMF.

□ 엘시시 정부의 안정적 집권에 따른 경제회복 추세 지속

- 2011년 반정부 시위 및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이후, 2013년 쿠데타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에 따른 관광수입 급감*, 투자위축 등으로 인해 2010년 5.1%를 기록하던 경제성장률이 2012~14년 2%대로 크게 하락하였음.

* 관광수입(백만 달러) : 13,633 ('10) → 9,333 ('11) → 7,978 ('14)

- 그러나, 2014년 엘시시(el-Sisi) 대통령 당선으로 정치 불안이 완화 되었으며,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15년 및 2016년 경제성장률은 4% 안팎으로 회복되었음.

- 2017년은 변동환율제 도입에 따른 물가 급등 및 새로운 통화정책 적용으로 인해 민간 소비와 투자가 다소 위축될 전망이나, 파운드화 평가 절하에 따른 수출경쟁력 상승에 힘입어 4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
□ 변동환율제 채택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및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률 지속

- 2016년 11월 IMF의 120억 달러 구제금융 승인 이후 IMF의 권고에 따라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여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* 하였으며,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높은 물가상승률 지속

* 환율 추이(이집트 파운드/달러) : 7.08('14) → 7.71('15) → 10.07('16)
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파운드화 평가 절하에 따른 수입비용 증가 및 연료보조금 축소의 영향으로 2016년 10.2%까지 상승하였으며, 2017년에는 변동환율제 도입에 따른 환율 상승 지속, 부가가치세 도입 및 보조금 축소로 18%까지 상승할 전망이다.
- 이집트 정부는 수십 년간 중산층 이하 가구의 소득 보전을 위해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, World Bank에 따르면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던 2013년 7월~2014년 6월에는 GDP의 약 8.5%인 1,500억 파운드에 육박하였음.
- 정부는 증가하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7월 공공요금 인상을 통한 광범위한 연료보조금 개혁을 실시(천연가스 100% 인상 및 전기요금 5년간 단계적 인상 등)하였음.
- 한편, MENA(Middle East North Africa)지역 국가들은 수십년간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, IMF는 2011년 기준 MENA지역 보조금이 지역 GDP의 8.6%, 정부수입의 22%, 전세계 에너지 보조금의 48%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

□ 부가가치세 도입 및 IMF 등의 양허성 차관 지원에 따른 재정적자 감소

- 한편, 2017년 예상되는 재정적자 대부분은 IMF, 다자기구 등의 양허성 차관(이자율 1~2% 수준)으로 충당할 예정으로, 2017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16년 -12.02% 대비 개선된 -9.69% 예상
- 이집트 정부는 연간 예산의 1/3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공부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으며,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이율은 15% 이상임.
- 이집트는 IMF 구제금융의 승인조건으로 기존의 일반 판매세(10%)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(13%)를 도입*하였음.
- * 2016년 9월 도입 시 13%, 2017년 7월부터 14% 적용 예정
- 부가가치세 도입은 GDP의 약 1%에 해당하는 세수 증대를 통해 IMF 프로그램 중 하나인 사회안전망 확충(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·현금 지원)에 기여할 전망이다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걸프협력회의의 국가, 미국 등의 원조에 높은 의존도

- 걸프협력회의(GCC)* 국가와 미국으로부터의 원조는 외국인투자 유입, 재정수지적자 보충,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이어져 이집트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.

* 1981년에 결성된 걸프 지역 아랍 산유국의 협력체로, 사우디아라비아, 카타르, 쿠웨이트, 바레인, 오만, UAE 6개국으로 구성됨.

- 이집트는 이슬람주의자인 무르시 대통령 축출 후 쿠웨이트, 사우디, UAE로부터 200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받았음.
- 한편, 미국은 이집트에 매년 13억 달러 규모의 군사원조를 하고 2012년 10억 달러 규모의 외채탕감에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.

- 다만, 최근 저유가 기조로 GCC 국가들의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향후 대 이집트 원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으며, 미국은 2013년 엘시시 대통령의 쿠데타 이후 군사원조를 중단한 전례가 있음.

□ 높은 관광업 비중으로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

- 이집트의 경제구조는 2016년 기준 서비스산업 52.9%, 제조업 35.8% 및 농업 11.3%로 이루어져 있으며, 특히 관광업의 경우 2014년 GDP의 12.8%*에 달하는 등 중요한 위치를 차지

* WTTC(World Travel & Tourism Council)의 'Economic Impact 2015 Egypt' 기준

- 관광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 국내 및 중동의 정치·사회 상황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음.
- 2011년 '아랍의 봄' 이후 지속된 테러와 정정불안으로 2010년 13,633백만 달러에 달하던 관광수입은 2014년 7,978백만 달러로 급감 하였음.

□ 비 OPEC 회원국 중 아프리카 1위의 에너지 생산국이자 순 수입국

- 이집트는 2015년 말 BP(British Petroleum)자료 기준 비 OPEC 회원국중 아프리카 1위의 원유·천연가스 생산국이나 국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연간 약 160억 달러의 원유 및 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추정됨.

- 한편, 최근의 급격한 파운드화 평가절하는 에너지수입 비용증가와 함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('16년^e 10.2% → '17년^f 18.24%)의 원인이 되고 있음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지중해 최대 규모의 Zohr 천연가스전 발견으로 성장 발판 마련

- 이집트는 2015년 지중해 해안에서 190km 떨어진 Zohr 광구에서 약 8,500억m³ 규모의 천연가스전을 발견하였으며, 이는 현재까지 지중해 연안에서 발견된 가스전 중 최대 규모임.

- Zohr 가스전의 매장량은 이집트 전체 에너지 수요*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, 2018년 생산이 시작되면 에너지 수입비용을 줄이면서 무역수지 개선과 외환보유고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

* 2015년말 기준 이집트는 4,102만톤의 천연가스를 생산하였으며 4,303만톤을 소비하였음.

- 이집트 국영가스회사 EGAS의 Mohamed Al-Masry 사장은 지난 2월 개최된 'EGYPT PETROLEUM SHOW 2017'에서 "2018년이 이집트가 가스를 수입하는 마지막 해가 될 것" 이라고 말하며 2020년에는 수출을 시작할 계획임을 밝힘.

Zohr 가스전 개요

- ◇ 이집트 정부는 2015년 6월 ENI사가 20억 달러에 시나이 반도와 수에즈만, 이집트의 지중해 해안, 나일 삼각주 등을 탐사할 수 있도록 허용
- ◇ 이탈리아의 ENI사는 탐사권 계약을 체결한지 3개월만에 지중해 해안에서 190km 떨어진 Zohr 광구에서 8,500억m³ 규모의 천연가스전을 발견하였음. (원유 55억 배럴상당 규모)
- ◇ Zohr 천연가스전의 매장량은 BP(British Petroleum)자료 기준 2015년 말 이집트가 보유한 천연가스 확인매장량(1.8조m³)의 약 절반 수준에 해당
- ◇ 이집트 정부로부터 Zohr 광구의 개발권을 받고 사업을 진행중인 ENI사는 2017년말 생산이 시작되고 2019년에는 일당 석유 50만 배럴 상당의 가스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다. 정책성과

□ IMF와 합의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충실한 이행

- 엘시시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IMF와 구제금융 도입*시 합의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으며, 2016년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한 이래 VAT 도입, 변동환율제 실시 및 보조금 감축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실시해 오고 있음.

* IMF는 2016년 11월 총 12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승인하고 27.5억 달러를 집행 하였으며, 나머지 금액은 2016~19년 동안 VAT 도입 등 합의사항의 준수 여부에 따라 지급할 예정임.

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개요

- ◇ IMF는 2016년 11월 이집트의 거시경제 안정성 및 성장 제고를 위해 120억 달러의 구제금융 프로그램(EEF : Extended Fund Facility)을 승인하였으며, 27.5억 달러를 즉시 집행함.
- ◇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목표는 대외 불균형 해소, 경쟁력 회복,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축소, 성장 촉진,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보호임.
- ◇ 총 120억 달러 중 선 집행된 27.5억 달러 이외의 금액은 구제금융 프로그램 기간(3년) 동안 아래 5가지 사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
 - 1) 경제개발 프로그램 도입 : 투자 자신감 회복, 외환보유고 확보 등
 - 2) 변동환율제 도입 및 이집트 파운드화 평가 절하
 - 3) 재정적자 감축 : 부가가치세(VAT) 도입 및 보조금 감축 등
 - 4) 구조개혁 : 보조금 개혁, 여성과 청년 고용시장 확대 등
 - 5)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지원

□ 양도소득세 유예 및 연체금 상환 등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

- 2016년 11월 이집트 최고투자위원회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3년 유예, 나일강 인접 상부 이집트(Upper Egypt) 지역 농업 및 제조업 투자자에 대한 5년간 소득세 경감 등이 포함된 투자 진흥조치를 승인 하였음.

- 또한, 이집트 정부는 에너지 부문의 투자 촉진을 위해 다국적 에너지 회사 앞 연체금을 상환*해 왔으며, 그 영향으로 이탈리아의 국영 에너지회사 ENI 및 영국의 석유회사 BP와 BG 그룹으로부터 투자를 약속받은 바 있음.

* 연체금 규모 : 2013년말 70억 달러 → 2016년말 35억 달러

- ENI社는 2015년 8월 Zohr 천연가스전을 발견 하였고, BP는 2016년 Zohr 지분의 10%(3억 7,500만 달러)를 매입하였으며 2017년에 지분 5%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

3. 대외거래

< 표 2 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 ^e	2017 ^f
경 상 수 지	-6,390	-2,356	-12,182	-14,999	-12,101
경 상 수 지 / G D P	-2.2	-0.8	-3.7	-5.8	-5.2
상 품 수 지	-29,484	-39,182	-38,551	-35,298	-30,610
수 출	26,534	25,269	19,031	15,825	18,230
수 입	56,018	64,451	57,582	51,123	48,840
외 환 보 유 액	13,608	13,092	16,704	13,888	19,963
총 외 채 잔 액	46,492	48,989	56,145	62,934	81,334
총 외 채 잔 액 / G D P	17.1	16.3	17.0	18.5	28.38
D S R	4.9	5.9	5.4	7.5	11.6

자료: IMF, EIU, OECD

□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는 2017년에 다소나마 개선 전망

- 인구 증가와 파운드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액 증가로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음. 2016년 GDP 대비 경상수지는 GCC 국가 등의 무상 원조가 차관 형태로 전환됨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감소* 등으로 인해 -5.8%를 기록하였음.

* 경상이전수지(억 달러) : 277('14) → 182('15) → 176억 달러('16)

- 2017년에는 파운드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경쟁력 상승효과가 수입가격 인상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, GDP 대비 경상수지는 -5.2%로 전년 (-5.8%) 대비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.

□ **부족한 외환보유액은 IMF 등의 지원으로 점차 증가할 전망**

- 2016년 외환보유액은 2015년 167억 달러 대비 감소한 139억 달러로 월평균 수입액 대비 2.6개월에 불과한 상황이나, 2017년에는 IMF, GCC 국가 및 중국 등의 지원으로 약 20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.
- 한편, 이집트는 2017년 1월 중순 카이로에서 투자자 미팅을 시작한 후 1월 24일 40억 달러의 채권 발행에 성공*하였으며, 이는 부족한 외환보유고 보완과 재정수지 적자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.
 - * 당초 목표액의 2배 규모로 발행에 성공한 금번 채권은 Fitch가 B등급을 부여하였으며, 5년만기 17.5억 달러(6.125%), 10년 만기 10억 달러(7.5%), 30년 만기 12.5억 달러(8.5%)로 구성됨.

□ **외채잔액 증가 추세이나 D.S.R이 7.5%로 양호한 수준**

- 2016년 기준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18.5%로 전년(17.0%)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, D.S.R.은 7.5%로 양호한 수준임.
- 2017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IMF 구제금융 승인 등의 영향으로 28.3%로 증가할 전망이다, 외채증가분 대부분이 양허성 차관(이자율 1~2% 수준)으로 조달될 예정으로 외채 원리금 상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임.

Ⅲ. 정치·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**엘시시 정부, 안정적 정권 유지 전망**

- 30년 간 장기 집권한 무바라크 대통령이 2011년 1월 반정부 시위로 하야하면서 독재정권이 종식되었고, 2012년 6월 무르시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나 엘시시 국방장관이 주도한 쿠데타로 1년 만에 정부가 전복됨.
- 이후 2014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엘시시 국방장관의 당선에 따라 정식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불안이 완화되었으며, 2018년 임기까지 정국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.
 - 한편, 엘시시 대통령은 임기가 종료되는 2018년 재선 출마가 예상되며, 군부 등 정부 기관들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권위주의와 경제개혁으로 인한 대중의 반발 가능성

- 정부 기관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, 엘시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VAT 도입 등 정부의 경제개혁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대중의 반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.
- 한편, 엘시시 정부는 대중매체를 통해 엄격한 치안관리와 경제개혁의 시급성을 홍보하고 있으며, 개혁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어 당장 큰 소요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.

2.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

□ 무슬림 형제단의 위협이 상존하나 엘시시 정부의 통제력 유지

-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조직인 무슬림 형제단과 추종자의 상당수가 감옥에 있으며, 최근의 치안 강화를 빌미로 한 억압적 통치는 무슬림형제단의 추종자들을 극단주의자로 변화시킬 위험이 있음.
- 그러나, 엘시시 정부의 대안세력 부재에 따라 엘시시 대통령의 권위주의에 대한 불만은 미미하며, 야당도 정권을 교체할 동력이 없어 당분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임.

□ 경제개혁에 따른 대중의 불만과 반정부 단체가 존재하나 사회불만 가능성은 낮은 편

- 변동환율제 도입 및 보조금 삭감 등에 따른 10% 이상의 소비자물가 상승률, 2016년 기준 13%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 및 소득침체로 시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.
 - 특히, 15~24세 청년실업률은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*하여 World Bank 기준 2014년 42%에 육박하며, 사회불안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.
- * 청년실업률 : 26.3%('10) → 33.9%('11) → 41.7%('13) → 42.0%('14)
- 누적된 불만으로 2016년 11월 반정부 단체(Ghalaba)가 현 정부 퇴진운동을 주도하였으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며, 사회적으로 경제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큰 혼란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.

3. 국제관계

□ 친서방 정책과 함께 GCC 국가로부터 경제적 이익 추구

○ 엘시시 정부는 미국 및 EU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극대화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, 무르시 대통령 축출 후 쿠웨이트, 사우디아라비아, UAE로부터 200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받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음.

-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2016년 4월 240억 달러의 차관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이집트 중앙은행이 2016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20억 달러의 예금 유치를 발표하는 등 사우디의 지원은 이집트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

○ 사우디아라비아, UAE 등 GCC 회원국들은 수니파 왕정 국가로, 이슬람 공화정을 추구하는 무슬림형제단과 그 추종세력이 자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극도로 경계하여 엘시시 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.

- 단, 카타르는 예외적으로 무슬림형제단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여 다른 회원국들과의 갈등이 잠재됨.

○ 그러나 최근 저유가로 인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의 타격, 시리아 분쟁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* 및 최근 이집트 정부의 사우디아라비아 앞 홍해 2개섬 양도문제**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

* 이집트는 시리아 사태 관련 아사드 대통령을 옹호하는 러시아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한데 반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 또는 축출을 고집하고 있음.

** 이집트는 2016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 앞 홍해의 2개섬(Tiran, Senafir) 양도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국내의 반대와 법적인 문제로 폐지될 위험에 있으며, 이로 인해 사우디와의 유대(지원)에 균열이 예상됨.

□ 중국 등 비전통 우방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외연 확대 추구

○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통 우방국으로부터의 원조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GCC 국가를 넘어 외연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, 최근 중국과 27억 달러 상당의 차관도입계약을 맺는 등 비전통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 하고 있음.

- 한편,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 건설에 따라 청나일 강(나일 강 상류)의 이집트 유입 제한으로 심각한 수자원 부족이 예상되며, 댐 건설에 대한 이집트의 강력한 반발로 에티오피아와의 관계 악화 및 에티오피아의 동맹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긴장이 잠재하고 있음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파리 클럽과 미국 등으로부터 채무재조정 경험 보유

- 이집트는 파리 클럽과 1987년, 1991년에 각각 71억 달러, 212억 달러 규모의 외채 리스케줄링에 합의한 바 있으며, 미국은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후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2012년 이집트의 대 미국 채무 중 10억 달러의 외채를 탕감하였음.
- 한편, IMF는 2016년 11월 총 12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승인하고 27.5억 달러를 집행하였음.

□ ECA에 대한 외채규모 증가 및 연체금액 감소

- 2016년 9월 말 기준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총 197억 달러(단기 12억 달러, 중장기 185억 달러)로 전년 대비 64억 달러 증가하였으며, 채권국가 별로는 독일(80억 달러), 프랑스(58억 달러), 이탈리아(20억 달러) 등임.
- 전년 대비 외채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이집트 정부의 상환노력으로 연체 금액은 상당히 감소*하였음
- * 2015년 9월 말 기준 연체금액 10억 달러 및 회수불능금액 4.6억 달러
⇒ 2016년 9월 말 기준 연체금액 5.6억 달러 및 회수불능금액 4.3억 달러

2. 국제시장평가

< 표 3 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등급	종전 평가등급
당 행	D1 (2017. 2)	D1 (2016. 2)
OECD	6등급 (2017. 1.)	6등급 (2016. 1.)
Moody's	B3 (2016. 8.)	B3 (2015. 4.)
Fitch	B (2016. 12.)	B (2016. 5.)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국교 수립: 1995년 4월 13일 (북한과는 1963년 8월 24일)
- 주요 협정: 항공협정('79), 이중과세방지협정('92), 무역협정('96),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('96), 사증면제협정('96), 원자력평화협정('01), 장관급공동위원회 설립협정('12), 문화원 설립 및 운영협정('14),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('16)
- 해외직접투자 현황: 2016년 12월말 기준 46건 2.5억 달러(누계기준)
- 교역규모

< 표 4 > 한·이집트 교역 규모

(단위: 백만 달러)

	2014	2015	2016	주요 품목
수 출	2,364	2,179	1,770	자동차,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
수 입	532	218	62	식물성물질, 석유제품
교역규모	2,896	2,397	1,832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V. 종합의견

- 반정부 시위 및 군부 쿠데타 등 정권 붕괴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2012~14년 경제성장률이 2%대로 하락하였으나, 엘시시 대통령의 안정적 집권이 이어지면서 2015년과 2016년 경제성장률은 4% 안팎 수준을 기록하였음.
- 2017년 경제성장률은 변동환율제 도입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인한 민간소비·투자 위축으로 전년과 유사한 4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걸프협력회의(GCC) 국가 및 미국 등의 원조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, 관광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 국내·중동 정치 상황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.
- 기존의 일반 판매세를 대신하는 부가가치세 도입 및 IMF 등의 양허성 차관 수혜로 인해 2017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전년(-12.0%)대비 개선된 -9.4%를 기록할 전망이다.
- 2014년 5월 엘시시 대통령 당선에 따른 정식 정부 출범으로 정치 불안이 완화되었으며, 경제개혁에 따른 고통 가중으로 일부 반정부 단체가 존재하나 영향력이 미미하여 당분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임.
- 2016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18.5%, D.S.R은 7.5%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, 2017년 예상되는 외채증가분 대부분이 IMF 등 양허성 차관으로 조달될 예정인 바, 외채 상환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보임.

조사역 이기성 (☎02-6255-5727)
E-mail: ks.lee@koreaexim.go.kr